칼빈과 칼빈주의자 이환봉 박사의 성경 계시 이해*)

최윤배(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문제나 정치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온-오프라인 상의 메스미디어는 경제와 정치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급격한 하락과 둔화 문제와 수준 미달의 도덕수준에 대한 사회의 지탄의 목소리로 인해 교회의 생존 자구책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같은 교회 안팎의 상황 속에서 새삼스럽게 성경 계시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시대상황에 부적합하고, 고리타분한 주제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환봉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판단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신학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신학은 성경의 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의 연구와 활동이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

*) 본 논문은 2015년 5월 12일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주최한 "제7회 칼빈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라 신학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성경관은 모든 신학 평가의 시금석(試金石)과 신학 논쟁의 분수령(分水嶺)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1]

성경관 자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개혁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개혁파 종교개혁자 칼빈과,[2] 한국장로교회에서 개혁신학 연구에 일생을 바친 칼빈주의자 이환봉 박사의 성경 계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신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칼빈[3]

1. 계시하시고 인식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의 밀접한 상관성

교회사와 신학사(神學史)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知識; cognitio) 또는 인식(認識)과 우리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은 종종 서로 떨어지거나 일방적으로 한 쪽만이 강조되어 신앙의 불균형이 초래되곤 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첫째 돌 판에 나타나고, 우리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둘째 돌 판에 나타나는데, 이 두 돌 판이 서로 떨어지거나 한 쪽으로 편중될 경우 신앙과 신학은 병들게 된다. 칼빈은『기독교 강요』제1권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말한다. 이 점에서 그는 아우

1) 이환봉,『성경에 이르는 길』(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2), 8.
2) 칼빈의 성경해석에 대한 다음의 탁월한 글을 참고하시오. 안명준,『칼빈의 성경해석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안명준,『칼빈해석학과 신학의 유산』(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이환봉, "칼빈의 성경권위에 대한 신학적 근거,"『칼빈의 성경해석과 신학』(서울: SFC, 2011), 34-49.
3) 참고, 최윤배,『깔뱅신학 입문』(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교회의 올바른 신앙 전통 속에 서 있는데,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 츠빙글리,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 Butzer)는[4] 이 두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강조했다.

칼빈의 경우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5] 이 두 지식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지식이 우선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6] 왜냐하면 칼빈 자신이 어떤 때는 "우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온다."고 말하면서도,[7]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지식이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8]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sapientia),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cognitio)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9]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할지라도, 칼빈은 먼저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에 후자에 대해 취급하는 것이 교육상 올바른 순서라고 말한다.[10]

4) 최윤배,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제I권 i장 1절. 앞으로 제I권 i장 1절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6)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7)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8)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2.
9)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10)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3.

2)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과 우리의 신앙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창조주) 및 섭리자(섭리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자(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및 섭리주이신 동시에 구속주라는 내용을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 대한 지식과 대비시켜보면, 우리에 대한 지식은 아주 쉽게 도출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구속받은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일반 자연인(自然人)에게는 이것이 자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신앙과 참된 경건을 가진 신앙인(信仰人)이 될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창조주 지식, 필자주)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계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구속주 지식, 필자주)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신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 주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duplex … cognitio)이 생긴다. …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

11)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1.

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1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하며, 둘째로 그의 수중에 있는 모든 선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에게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쳐야한다. 순수하고 참다운 종교의 본질은 신앙에 있다. 이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경외심을 내포하고 율법의 명령에 일치되는 정당한 예배를 가지게 한다.[12]

3) 자연계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칼빈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 역사, 자연, 우주 등이 해당되는 '자연계시(自然啓示)' 또는 '일반계시(一般啓示)'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특별계시(特別啓示)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중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13]

칼빈에 의하면, 인간, 역사,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12)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2.

13)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는 용어는 칼빈 자신이 사용한 용어는 아니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칼빈의 인식론과 계시론 논의를 위해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89-90; 최윤배, "칼뱅의 과학에 대한 이해," 한국조직신학회 편,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6집 (2010), 16.

자신의 무지(無知)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상숭배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우연히 고안한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계시는 세계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자연계시는 인간 속에서 우상숭배와 무지와 악독 등으로 오용되고 왜곡되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연계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려야할 부분은 모든 피조물과 자연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연계시는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신앙 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얻은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이 바라볼 때, '주관적으로' 더욱 왜곡되게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어떤 섬광은 과연 밝다. 그러나 강력한 빛을 발하기 전에 꺼지고 만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신성이 볼 수 있는 객체물로서 표현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다."[14]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자체가 바로 여기에 대한 증거이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을 수 있

14)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4.

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religionis semen)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 사실 우상숭배(idololatria)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 하겠다."[15]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종교의 씨앗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용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고 칼빈은 계속적으로 지적한다.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만, 받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백 명 중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다. 어떤 이는 자기들의 미신 속에 … 다른 어떤 자들은 고의적인 사악으로서 … 하여간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퇴락되었다."[16] "근절할 수 없는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부패하였으므로 가장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다."[17]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와 오용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적으로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세계 구성의 각 부분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구성의 각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위에 그의 영광을 너무나 명백하고 모호한 점 하나 없이 현저하게 새겨두셨으므로, 일자무식한 자나 우둔한 자라도 무지를 구실로 변명할 수는 없다."[18]

15)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i 1.
16)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
17)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4.
18)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 1.

결론적으로, 칼빈의 경우, 자연계시의 기능은 우리의 무지를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며, 자연계시의 한계는 우리가 구속주 지식을 갖지 못하므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뛰어 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시의 한계와 가치와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계시와 성령 및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요청된다.

4)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비판학이 발달된 이래 성경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경영감설 논쟁이나 성경고등비평 논쟁과 결부하여 칼빈의 성경관을 다루지 않고,[19]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즉, 칼빈의 경우,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칼빈은 크게 두 진영과 논쟁하였다. 한 편으로 그는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도 정경(正經)을 결정한 교회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반대하여 논쟁하였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면 왜 어떤 책은 그 성수(聖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러므로, 그들은(중세 로마가톨릭교회, 필자주) 말하기를 교회의 결정 하에 있다고 한다."[20]

19) 최윤배, "깔뱅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서마당」(2009 가을 신창간 제22호 통권 91호), 33.
20)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1.

다른 편으로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외에 교회나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 열광주의자들에 반대하여 깔뱅은 논쟁하였다.

"요사이 어떤 견실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만하게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경 읽기를 거절하면서 소위 그들이(종교개혁자들, 필자주) 죽은 문자에 아직도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순진하다고 비웃는다. …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무는 듣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전해준 동일한 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있다."[21]

(1)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및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의 성경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관은 넓은 의미에서 계시론의 범주 안에서 취급된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역사, 자연, 그리고 우주 속에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피조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 안에 여전히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을 볼 수 있는 인식력의 훼손으로 이 지식을 왜곡되게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의 무지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21)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x 1.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인이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하나님은 자비의 행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외적 수단이 된다.

타락으로 눈이 멀어진 우리가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을 구속하고 계시는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22)]

계속해서 칼빈은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다도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도움이란 칼빈의 용어로 '안경' 즉,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안경의 기능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런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23)]

22)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1.
23)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1.

(2)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은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 온전한 계시가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족장들이 그 후손에게 전수해야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를 위하여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 추가 되었다. …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롬10:4)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회개 외에도,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갖 다른 거짓 신(神)들과 혼동할 수 없도록 그 분에 대한 분명한 표증들과 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24]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을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기

24)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2.

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살핌이라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보시는 것이 분명하다."[2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오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이 왜곡되어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 지식을 잃게 된다.[26]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27]

(3)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성경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 권위를 칼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기록된 구약성경은 그 내용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며, 그 연대가 오래며, 조상들의 수치스런 일까

25)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2.
26)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3.
27)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4.

지 기록하였으며, 기적들에 의해서 말씀이 입증되었으며,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되었다는 관점에서 객관적 권위가 있다. 그리고 기록된 신약성경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기록했지만, 하늘의 신비를 전해주며, 모든 세계교회가 존경하고 있으며, 순교자들이 성경적 교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객관적 권위를 갖고 있다.[28]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 권위, 곧 외적 권위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권위이다. 성경에 대한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증거 또는 조명(*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신적 위엄을 가지긴 하지만, 성경의 독자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그 위엄을 믿을 때, 비로소 신적 위엄을 가진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에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에 의해 조명된 자들이 아니고는 … 볼 눈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29]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증인이듯이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들이 신실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30]

칼빈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신적 권위를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

28)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i.
29) John Calvin, 『디모데후서 주석』, 딤후 3:16.
30)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4.

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31] 계속하여 성경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의 중요성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自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32]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끈으로 연계되어 있다."[33] 특히 성경을 죽은 문자로 이해하여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열광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성경과 성령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한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에서 주장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

31) Calvin, 『디모데후서 주석』, 딤후 3:16.
32)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5.
33) W. van 't Spijker, *Johannes Calvij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31.

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34]

Ⅲ. 칼빈주의자 이환봉 박사

1. '계시'(啓示, revelation)

이환봉에 의하면 '계시'는 어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자기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자기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자기현시의 신적 행위이다.[35] 비록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제적 차원을 부정하지만, 이환봉은 하나님의 계시의 인격적 차원뿐만 아니라, 명제적 차원도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36]

이환봉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생애 즉,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37]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총화이다."[38]

이환봉은 여러 신학자들, 특히 칼빈의 계시론과 칼 바르트(K. Barth)와 에밀 브룬너(E. Brunner) 사이에 벌어진 자연신학 논쟁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계시 이해에 도달한다. 그는 일반계시의 수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은 일반계시의 객

34)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x 3.
35)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32.
36)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36.
37)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36-37.
38)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37.

관적 수단인 자연과 역사, 그리고 주관적 수단인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신다."[39]

이환봉에 의하면, 일반계시의 가치는 다양하다. 일반계시는 모든 종교의 근거를 제공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 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고, 복음전파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40] 그러나 일반계시는 한계를 갖는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제공할 뿐이지, 구원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전혀 제공할 수 없다. … 이러한 일반계시의 '불충분성'(*insufficientia*)은 자연적으로 특별계시의 필요성(*necessitas*)을 요청한다."[41]

2.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이환봉은 성경을 특별계시와 관련하여 이해한다. "오늘날 '특별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지칭한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책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42]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영감된 경(經) 즉 기록된 말씀의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해 보존되었다."[43]

이환봉은 성경을 특별계시가 낮아진 '종의 모습'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기 위해(고전15:28) 시공의 제한을 받는 문자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예언과 이적 안에 나타났던 영광스런 계시가 가장 낮은 기록의 형태와 양

39)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84.
40)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86-87.
41)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89.
42)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89-90.
43)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06.
44)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06.

식을 취한 것이다."[44]

그러므로 특별계시와 성경은 상호 구별되나 상호 분리될 수는 없다. "특별계시와 성경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특별계시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고 있다가 수년 후에야 비로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한 때와 책으로 기록된 때가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렘25:13, 30:1-2, 36:2). … 그러나 양자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45]

3.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조명

대부분의 특별계시가 성경보다 선행한다. 그러나 그 계시가 기록될 때에는 성령의 영감(Θεοπνυστια) 즉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다.[46]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하나의 특별계시이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47]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 정경으로서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가 더 필요한가? 교회 초기 몬타누스(Montanus)를 비롯하여 칼빈 시대에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새로운 계시, 소위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경이 완료된 이후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그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환봉은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

45)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07.
46)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08.
47)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08-109.

"정경은 사도시대의 마지막에 종결되었다. 그 기록된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 신약시대의 살아 있는 계시 기관인 사도와 선지자들 안에 있던 계시적 은사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도 시대의 종결과 함께 교회의 터와 같았던(엡2:20) 사도들의 구두 계시는 멈추게 되었고(단9:24), 그들의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로 융합되었으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감하시는 사역은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는 사역으로 전환되었다."[48]

다시 말하면, 신적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여 완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내적 증거(납득)과 조명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달아, 믿고, 확신케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시의 역사를 계속하신다.[49]

Ⅳ. 결론

계시 이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환봉 박사의 성경관이 칼빈의 성경관과 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환봉 박사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장로교회에게 선물하신 위대한 칼빈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칼빈과 이환봉 박사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우주와 자연과 역사 속에 그리고 주관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 계시된 일반계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으로는 인도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계시,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특별계시로서 성경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48)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11-112.
49)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112-113.